

서른한 번째 날_3월 24일 (수요일)

영원한 방패이신 주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 78 - 79 새번역 성경>

아틀란타 총격 희생자들과 아시안 혐오 범죄 종단을 위한 공동기도문

..... 하나님, 당신은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며, 다른 인종을 혐오하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며칠 전 우리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 총기 사건으로 6명의 아시안 여성을 비롯하여 8명의 이웃을 잃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안식처이신 주여 저들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받아 주소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범죄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과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방패이신 주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해방과 평화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다양성 안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하소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힘주시는 하나님, 침묵과 굴종 속에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일으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위해 힘써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새 기운을 주소서... 아멘

글: 2021년 3월 21일, 시카고 이민자 보호 교회가 주관한 <아틀란타 총격 희생자들과 아시안 혐오 범죄 종단을 위한 기도회> 공동기도문

사진: NY Times

서른두 번째 날_3월 25일 (목요일)

우직하고 성실하여서 치유하는 생명의 강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 47: 1 개역개정 성경>

검룡소 - 한강의 시작

태백 터미널에서 예수원을 가다보면, 큰 바위 위에 쓰여진 “검룡소” 라는 글자를 만납니다. 그 길로 20분 정도 산길을 오르면, 아이라도 한 발짝에 뛰어 넘을, 작고 맑은 시내에 이릅니다. 수백 km 를 흘러 한강을 이룰 물줄기의 시작입니다. 원래 강물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한가 봅니다. 공자가 본 양쯔강의 시작도 겨우 술잔 하나 띄울만 했다지요.

에스겔이 보았고 요한에게 다시 보여진 (계 22장) 생명의 강도 처음부터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500m(천척) 를 가야 그제서 발목 깊이가 되고, 또 500m 를 가서 무릎에 찹니다. 물길에 바위를 만나면 유유히 돌아 새 길을 찾았을 것이고 더 낮은 땅을 만나면 그곳 채우고 다시 전진하였겠지요. 하지만, 성전에서 시작한 물은 굵떠 보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우리의 걸음도 이 물길과 같기를... 우직하고 성실하여서 결국 여럿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이 되기를...기도합니다.

글 사진: 한명훈 목사, 태백 검룡소
2021 사순절 묵상

서로 만날 날 기다리자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잠언 22: 6 현대인의 성경>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사단법인 어린이 어깨동무는 2001년 남과 북, 재일 조선학교, 일본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아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그림전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내 얼굴 그림 △평화를 바라는 그림 △멀리 있는 친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림 등으로 짜였습니다. 남북 등의 어린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자기와 가족을 소개하고 공부하는 학교와 사는 마을을 그렸고 북녘 어린이들의 그림 속에는 자신의 별명과 꿈,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북동무들이 우리 알지 말고
서로 공부 잘하여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다.
-미래의 친구 로충혁

북이나 남이나 어린이들의 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부, 미래 그리고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고집과 이념의 갈등 때문에 어린이들이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남과 북, 재일 조선학교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어깨동무도 하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 된 우리가 먼저 평화와 통일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분단된 조국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도서 11:9 현대인의 성경>

윗물이 얼어도 아랫물은 흐릅니다

“강물의 표면이 꽁꽁 얼었을 한 겨울에도, 얼음 밑에는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움직임이 잠시 결빙이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남북교류 추진 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9년 10월 5일, 대학생들이 민간 분야 교류로 통일의 물꼬를 트겠다며 남북교류 추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정치 성향, 종교, 활동 분야도 다양한 대학생 단체들이 손을 잡았다"며 "남북 정상의 만남을 넘어 이제 인간이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 또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선언 1조1항의 정신으로 (북측과)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남과 북 대학생이 서로 만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변화, 평화, 통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앞으로 '금강산 대학생 평화캠프'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분야 남북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금강산 대학생 평화 캠프'등 대학생들의 만남과 교류도 교착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물의 표면은 얼어도 밑에는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다시 새깁니다. '대학생 남북교류 추진 네트워크'에 소속된 대학생들 뿐 아니라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남북 젊은이들의 꿈과 패기가 얼지 않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못해 힘겹고 지칠 때에도,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친밀하신 섭리 가운데 한걸음 한걸음

걸어온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의 길을 가게하여 하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품을 꿈꾸며 온 열정과 마음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를 위한 부르심!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 15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 2월 29일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선언의 서문 일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 2 : 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눅 4 : 18, 요 14 : 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 10 : 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 5 : 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 14 : 18~21, 16 : 13~14, 17 : 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골 3 : 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 : 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의 정부 책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 「선언」은 한국기독교인들의 잠자던 통일의식을 일깨우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 반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전망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남북 관계를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 간곡히 기도하오니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북의 평화 통일과 화해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소망'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개역개정 성경>

소망에 관하여..
발자국 끊어진 곳
잊혀져 가는 곳
우리 두 눈 속에 희미해 지는 곳
볼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선명히 그릴 텐데
되돌아 가기엔 너무먼 시간였을까
바다를 건너도 그렇게, 닿을 수 없을까
가슴 깊은 곳, 간절한 소망
그 언제 쯤엔 망설임 없이 전할 수 있을지
잊혀지기전에, 더 흐려지기전에
꼭 다시 한번은, 함께 해요..

그리움 가득한 곳,
매일 꿈꾸는 곳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곳
볼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선명히 그릴 텐데
되돌아 가기엔 너무먼 시간였을까
바다를 건너도 그렇게, 닿을 수 없을까
가슴 깊은 곳, 간절한 소망
그 언제 쯤엔 망설임 없이 전할 수 있을지
잊혀지기전에, 더 흐려지기전에
꼭 다시 한번은, 함께 해요.

작곡가 이우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같이 불러지기 바래 만든 노래의 가사입니다.

주님, 더 이상 '잊혀지기 전에' 더 흐려지기 전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긴 전쟁과 다툼을 중지하고, 평화와 희망을 우리 민족이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